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9(土)	30(日)
구름 많음 한때 비 3/9℃	구름 조금 -1/13℃

News

- 조선대에 입시이사 파견 ②
- 전선 절도 점차 지능화 ③
- '지존' 신지에 2R '추출' ⑧

Books

- 김훈 '바다의 기별' ⑭

Entertainment

- '뭇난이' 개그우먼 뜨네 ⑧



- 미리 본 광주국제영화제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느릅나무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獨 출신 조선대 안톤 솔츠 교수의 지극한 남도 사랑

“전남 F1 유치 전도사 되겠다”

“태권도를 좋아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한국인 여자 친구와 결혼도 했어요. 이제는 광주가 좋아서 여기서 살아요”

올해로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독일 출신 안톤 솔츠(Anton Scholz·36) 조선대 독어교육과 교수는 192cm의 훤칠한 키에, 외모만 이국적일 뿐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다. 한국인 뽀짝 정도로 우리 말이 유창할 뿐 아니라 한국음식, 여행도 즐긴다.

지난 2003년 조선대에서 독일어 강의를 시작, 이듬해 광주 향 교에서 결혼을 한 뒤엔 아예 정착, ‘광주 사람’이 됐다.

‘글로벌 광주’를 위해 손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F1 홍보에 앞장 서고 있는 솔츠 교수의 ‘광주·전남 사랑’은 남다르다.

그는 독일에서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우다 함부르크대에서 한국학을 전공했다. 지금은 부인이 된 한국인 여자친구의 영향도 컸다. 그러다 지난 1994년 처음 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이후 일본, 독일을 거쳐 2003년 9월 조선대에 임용되면서 광주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틈만 나면 전국의 가볼 만한



안톤 솔츠 조선대 교수는 모터 사이클 매니아다. 세계적인 오프로드(Off Road) 모터사이클 메이커 ‘KTM’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그는 “요금이나, 주차 공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BMW사 자문 역임...모터 스포츠 전문가
태권도 배우다 한국에 관심...한국학 전공
“F1 국가 브랜드 높일 수 있는 행사” 강조

“자리산, 설악산은 세계 어디에 견줘도 손색이 없고 완도와 거제, 남해 바닷가도 아름다워요” 그는 여행 경험을 살려 2004년부터 관련 잡지에 매달 여행 관련 글·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광주·전남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도 많다. ‘내가 사는 곳이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언제 들어서는지 궁금해 하고 F1 대회를 왜 정부가 선뜻 지원하겠다고 나서지 않는지 의아해 한다.

그래서인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글로벌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에 애정 어린 손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을 표방하며 다문화시대에 걸맞은 진정한 글로벌 도시가 되려면 외국 전문가들이 찾을 수 있는, 더 나아가 정착할 수 있는 문화와 언어 환경, 비전, 전망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광주시에 외국인 지원 전담 기관·인원을 갖추고,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광주에 살면서 피부로 느낀 체험담들이다.

전남도의 주요 시책인 F1 대회(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그의 애정은 남다르다. 그는 전남도에 전화를 걸어 F1 대회 유치 의지를 확인한 뒤 가까이 돌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BMW사의 컨설턴트로 활약하는 등 그의 모터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전문가 수준이다.

법원, 국내 첫 존엄사 인정

“식물인간 인공 호흡기 제거 요구 권리 있어”

법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3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 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 호흡기 등의 도움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인공 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적극적 안락사 및 모든 유형의 치료 중단에 관해 다른 것이 아니고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인공 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자녀들의 독자적 치료요청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 자녀들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광주시 ‘5+2’ 재편 입장 고수

사업계획서 제출 다시 거부

내달 靑 회의를 결정 날 듯

광주시가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관련, 28일까지로 예정된 사업계획서 제출을 또다시 거부하는 등 ‘5+2 광역경제권의 재편’을 촉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호남권 소외를 가중한다”며 5+2 권역 설정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이날까지 제출을 요구한 ‘선도산업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았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까지 시한이었던 선도산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호남에 1개 권역(호남권), 영남에는 2개 권역(동남권·대경권)을 편성한 ‘5+2 경제권 사업’이 호남권의 소외를 가중하고 영·

호남간 산업 격차를 심화하는 부작용이 뒤따르는 정책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시의 사업계획서 제출 거부에 따라 ‘호남권’에 포함된 전남도는 물론 전북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불거지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선도산업’은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에 편성된 3개 지자체의 공동사업으로, 한 곳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2월 4일 청와대에서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주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등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5+2 광역경제권 재편’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영기기자 zenfoot@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서부지구 내마취 50
062-221-1111

중·고생 거울병학 학습특강!
개강 :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캠퍼스
호남한샘학원
교육상담 : 062) 322-1111
호남한샘 : http://www.hanam.ac.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62-222-0100
0621538-9494